

해피밀 시즌 5-4호를 발간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께,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2026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서, 거대한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현장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수 1:9)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상황은 급변했고 시간은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여호수아서의 후반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급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불안하고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2026년 첫 해피밀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체가 될 때,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추 17:1-13

용기와 충성

1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2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3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땅의 분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마길이 '용사'였기 때문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덕목으로 '용사'같은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용사'하는 말은 '전쟁에서 남자다운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자답다는 말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양되지만, 사실 성경에서 남자답다는 말은 용감하고, 담대하며, 흔들리 없이 충성스럽다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용기'와 그로 인한 '담대함'이며,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충성'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기'는 오늘날 참 보기 드문 성품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은 용감하게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도 자기 계산과 확률에 따라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라는 것은 패색이 짙어 보이는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땅한 '당위성'과 '명분'에 따라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손해를 주고 고단한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는 덕목을 뜻합니다.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충성'을 '휘포스타시트'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전투선' 아래에서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추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노를 젓는 행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노를 젓어야 합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 북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듯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면 배가 움직이지 않듯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시험, 공격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기와 충성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죽음의 자리로 용감하게 걸어가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처럼 용감하고 충성되이 살아가길 결단해 봅시다.

해피인플루언서

1. 요즘 나는 용감한가요?
2. 내가 충성을 다해야하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고백과 삶

주 17:14-18

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환 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 자손의 한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 날 결단했던 용기와 충성의 가장 큰 방해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주어진 땅이 너무 적다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14절). 그러자 여호수아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15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요구에 '그 산지가 너덕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주민이 철병거가 있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그들의 말한 데로 정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백한 데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사는 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용기는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은 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용기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요구에 요셉 자손이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바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려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셉 자손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또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에 대한 감사와 인지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는 말씀은 실천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상황의 어려움을 변명 삼으며 용기와 충성을 놓쳐버리고 고백과 삶이 다른 모습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모든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의 고백과 삶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2. 최근 느끼는 두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추 18:1-10

나태함과 나의 전쟁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 올 것이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요청은 매우 지체로워 보입니다. 아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지파들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귀찮고 또 때로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을 없애기 위해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그 땅을 보고, 그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작업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즉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설정하는 작업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혹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 그 땅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행동할 때, 또 허락하신 곳으로 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미루어서 되는 것은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은 그냥 가만히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야망이 파리를 틀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가만히 놔두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신앙이 평안히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가서, 봐야 하고, 나가서, 그려야 하며, 나가서 꿈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나태한 자'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잠 6:10-11)" 이것은 다만 늦잠 자는 잠꾸러기에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태한 자에게 나타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요즘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2. 최근 그려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수 18:11-28

축복과 저주의 경계

11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12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벤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13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엘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앓달로 내려가서 아래 벤훈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14 벤훈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

해피인사이드

이동환 목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며 우리는 정경적인 관점에서 씁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희롱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발단으로 남쪽으로는 유다와 북쪽으로는 요셉에 쌓여있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의 끔찍한 내전이 일어납니다(사사기 19-20장). 그리고 이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는 단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열되는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북쪽으로는 요셉이, 남쪽으로는 유다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역 중 가운데에 위치하였습니다. 이 지역적 이점은 요셉지파와 유다 자손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때로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연합하기 좋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이 이후에는 전쟁터가 됩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후 분열왕국 시대에 도래하면 북쪽 요셉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와 남쪽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잦은 전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공간이 되는 것을 묵상하며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은 장소가 가진 물리적 이점으로 인함이 아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무너뜨리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저주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했던 곳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번역하면 '해골산'이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저주가 가득했던 그 골고다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충성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정수가 피어난 축복의 땅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와 눈물의 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그 저주의 지점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2. 나의 삶에 있는 저주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수 19:1-9

시므온이 저주받은 이유

40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겟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1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4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해피인사이드

이동환 목사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매우 작은 성읍만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예전 창세기 49장 5-7절 말씀에서 야곱이 시므온 지파에게 한 예언(저주)에 대한 성취입니다. 야곱은 시므온 지파의 폭력성을 질책하며 그가 이스라엘 중에 흠어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유다 지파의 흠어진 작은 성읍에 흠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이 질책한 시므온의 폭력성은 그가 세겜에서 자신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을 복수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별의 표징인 '할례'를 자신의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할례'가 가진 특수성과 거룩한 구별됨이라는 영적이고 고귀한 의미는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의적으로 복수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정경의 관점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요 복수자로 오십니다(계 6:10).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심판하심에 억울함과 원통함을 맡겨드리며, 아무쪼록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선을 행하며 고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법을 고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와 성찬을 대할 때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성찬에 담겨있는 영적인 동기와 일치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론 성찬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 시간으로 호도하는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성도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하고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례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가족공동체 '권속'이 되었다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례를 많이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양 생각하여 무분별히 세례를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에게 세례를 줄 때에 헛된 마음과 자기 욕심에 따라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최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경우가 있었나요?
2. 예배, 성찬, 세례와 같은 구별된 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고백은 어떤가요?



청소년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10장 40-43절> 읽기

1.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가져보아요.
오늘 할 게임은 <풍선 불어 던지기> 입니다!

- (1) 풍선을 준비합니다.
- (2) 출발 선과 종료선을 정합니다.
- (3) 출발선에서 풍성을 크게 불고 종료선을 바라보며 풍선을 놓습니다.
"푸리릭피식빠리뿌뿌뻑뻑"
- (4) 종료선에 가장 까지 간 사람이 승리합니다.
- (5) 아래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세요.



2. 1월 21일 미니홈피를 시청하시고, 1월 18일 말씀을 읽어주세요.

3. 최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4. 최근 꿈꾸게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나요?

5. 부모님께서 미리 기도문을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쳐주세요.

** 아래의 빈칸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	



수 19:10-51

주님을 중심으로

10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 49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 곧 여호와와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도드라지는 특징(1. 회막 문, 2. 여호와 앞, 3. 제비뽑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회막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문 앞에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회막 문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바깥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에서 분배의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땅 분배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 앞입니다. 회막 문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살피고 계시며, 신실한 약속 가운데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상기하게 했을 것입니다. 터전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방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고, 그로 인하여 분배 받은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가 목상해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들은 이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기에 제멋대로 인생을 계획할 것입니다. 일이 잘될 때는 하나님을 속 잊어버리고, 잘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꺼내어 분풀이용으로 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중심으로 둔 각 성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제비뽑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결과에 만족이 되었나요?
2.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저 우연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고 믿으시나요?





수 20:1-3

자비의 하나님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완전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의 재판은 실수가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재판하며 나의 손에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큰 죄악으로 치닫기 쉽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죄한 피 흘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 자,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 죽인 자, 철 연장과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등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피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우 엄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면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매우 엄격하고 두렵지만, 동시에 그분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기에 실수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에 터널링 된 피해자의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잘못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사회적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재판과 처벌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도피성 제도는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앞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감정으로, 내가 바라는 때에 해결하길 원합니다. 도피성은 터널링 된 우리를 잠깐 멈춰 서게 합니다. 잠깐 물러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사랑과 배려가 가득하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 우리의 모든 감정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관이심을 믿으시나요?
2.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자택감금

수 20:4-6

4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6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하나님의 배려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연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려는 자는 장로들에게 나아가 직접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들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피성 출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장로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다른 민족의 힘에 기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들어온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이 기록하듯이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는 말씀처럼, 도피성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미워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들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합당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것 또한 무겁게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새 시대의 시작'으로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에 맞춰 사면을 받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대제사장을 '희생 제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 곧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며, 그들의 죄가 대속됨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에 머무르는 자들은 그때까지 일종의 '자택감금' 상태로 지내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쳐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 크고 명확하며 영원한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담대히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의 죄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나요?
2.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수 20:7-9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7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8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하나님의 속성인 '편재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곳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을 얼마나 자주 마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마다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의 작은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피성이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여섯 개의 도피성이 적당한 거리에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남부, 중부, 북부에 각각 하나씩 위치하고 있으며, 요단강 동편에도 동일하게 남부, 중부, 북부에 세 개가 위치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든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된 위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은혜의 처소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땅에 머무는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 같은 이방 민족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대목입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는 은혜를 입었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거리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혹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혹여 잡혀갈까 두려워 소리를 죽여 삼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디에나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2.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어 교회에 나아온 적이 있나요?





수 21:1-42

부르신 자리에 거룩함을

1 그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2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그릇 가축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위 본문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에게 나아와 요구하는 몇 개의 장면 중 마지막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도 거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다른 지파들처럼 가축을 기르고 편히 쉬 곳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때 이들의 분배는 다른 여느 지파와 달랐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분배받은 특정 지역에 모여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업이 땅이나 성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신 18:2)."**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내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거룩성의 사명은 신약에 들어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외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뚝뚝 뭉쳐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흩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이며, 그의 소유가 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 편리함과 안락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나의 실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거룩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의 현재 자리는 어떤 곳인가요?
2.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나요?



장년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20장 1-9절> 쓰기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4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6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7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8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 21:43-45

하나님이 허락하실 안식

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온 땅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성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23:19에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에 안식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안식은 다시 깨집니다. 그리고 기근과 약탈, 그리고 전쟁에 이어 결국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비로소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분의 선한 뜻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하며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었지만,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진정으로 누리게 될 안식을 예표하는 그림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요, 우리의 분깃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잠시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취와 성공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살지 않고,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2. 나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왔기에 현실에 주저앉아서는 아니되며, 청지기로 세워졌기에 잠시 맡게 된 것들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가불

수 22:1-9

1 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2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4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와 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군대들을 이미 그들이 진작 기점으로 받았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땅은 모세가 살아있던 시절 그들이 모세에게 떼를 써서 기점으로 얻었던 땅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먼저 땅을 주면서 대신 가나안 전쟁 최전선에서 싸워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인간입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그들의 땅을 받았습니 다. 5년, 10년, 혹은 20년 치 월급을 이미 가불로 받은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서 전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이 약속을 신실 하게 지켰으며, 선봉에서 늘 전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이 전쟁에 신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지파 반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 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여길 수 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손해를 본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감 사한다면 이러한 세사적 계산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월급을 가불로 이미 50년, 혹은 평생을 다 당겨 받은 것보다 훨씬 큰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인간 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지파 반의 사람들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지만, 훗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2.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와 훗날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은 다릅니다. 이 땅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수 22:10-20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

10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1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마침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보기에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경계에 큰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나중에 요단강으로 인해 단절될지 모를 후손들에게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언약 백성임을 증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히 좋은 의도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이 행위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제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를 떠나 우상숭배로 향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의 뿌리를 처음부터 뽑아내기 위해 나머지 두 지파 반과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오해로 인하여 7년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수고하고 피 흘리며 싸웠던 형제에게 칼을 겨누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들의 성급함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으며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싯딤에서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간음과 우상숭배 죄악을 행하였을 때 끔찍한 재앙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한 지체의 죄악으로 인해 온 공동체가 죄로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룩한 열정이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와 확인의 과정을 선불리 생략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형제를 향한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홉 지파 반은 다행히 감정적인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절단을 두 지파 반에게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파견한 사절단은 지혜롭게, 또한 사랑으로 대화를 이끌어 오해를 풀어갔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국에서 구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체의 행동을 보고 선불리 분노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겸손히 대화하며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형제를 선불리 판단하고 정죄하여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2. 오해가 생길만한 여지가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수 22:21-34

함께하신다는 증거

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24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오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배반한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전쟁의 위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억울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이 일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분노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반역할 생각이 없었다고 오해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이토록 큰 오해를 살만한 거대한 제단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미래를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후대의 자손들에게 요단 동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요단 서편과 동편의 동쪽끼리 분리되거나 서로 편을 나눠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열을 초래하려는 목적이 아닌 오히려 연합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증거의 제단을 세워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믿음의 흔적,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진심 어린 해명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의 사절단은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졌습니다. 사절단의 리더였던 제사장 비느하스는 이 갈등의 해결을 사람들의 지혜나 설득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의 신실함과 그로 인해 회복된 공동체의 연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을 세우는 행위 가운데 악한 인간의 마음이 동반되었다면 아간의 범죄나 미디안 때의 죄악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 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며, 서로를 향한 신뢰와 용납은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의심과 분노로 시작됐던 이 사건은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관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하나 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노력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공동체의 구별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수 23:1-8

은혜의 흔적

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 시대에 이어 또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쓸쓸한 선언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죽음 앞에서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 아닌 결코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과거를 상기시키며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싸우신 분은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것을 넘어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땅을 제비 뽑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였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기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며, 끝내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가 자신의 권위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섭리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문제에만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굳건히 당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본 대로 하나님께선 지금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약속대로 기업을 주신 분이시니 결코 그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때에 따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유아유치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23장> 색칠하기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기억해요.





수 23:9-16

질투하시는 하나님

10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덧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오늘 본문은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10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말씀하시길, '스스로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거두어가지 않으셔서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덧이 되고,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른 신을 부르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가까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죄의 유혹들로부터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했던 것과 사람과 영역은 무엇인가요?
2.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직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 가까이하며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추 24:1-14

하나님의 인도하심

1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14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14절 말씀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나의 노력과 힘과 의가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반응의 열매로서 오늘을 살아갑시다. 보잘것 없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것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앞으로의 인생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는 않으셨나요?
2.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수 24:15-22

증인의 고백

...19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두고 자신들의 신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진실된 삶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의 증인이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고백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둘씩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22절)'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자신들의 증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증인이 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증언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다른 신들을 찾는 것은 위증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고백은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더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로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증인이 되어 위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진실되게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위증의 삶이 아닌 참된 증인의 삶으로 예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위증의 죄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추 24:23-28

... 25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 하였더라 26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27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법도를 제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여호와와의 성소에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증거의 장치를 세우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한 결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고백대로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운 후에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28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였다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고백한 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백한 대로 삶에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언약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증거의 장치들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지금도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만 멈췄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2.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추 24:29-33

여호와와의 종, 여호수아

29이 일 후에 여호와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30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디밧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디밧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이었던라 31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2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오늘 본문을 끝으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는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큰 압박감 속에 있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큼의 담대한 믿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1:7)'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 가 형통하리라(1:8)'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영광이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가는 삶을 꿈꾸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와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탄한 길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호와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지금까지 여호와와의 종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오셨나요?
2. 다시 한번 여호와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내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구절 기록해 봅시다.



아동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33절> 읽기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 다 함께 읽어보아요.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는 아래 빈칸에 채워보아요.

1. 여호수아 24장과 2월 6일 해피밀을 읽고 가정과 함께 나눌 말씀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어주세요.
2. 우리 가정 속에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있었나요? 혹여나 세상을 더 가까이했던 모습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3.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개인과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참고해서 나누어 봅시다.
4. 부모님께서 미리 기도문을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쳐주세요.
** 아래의 빈칸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